



사단
법인

배우고 가르치며 따뜻한 세상을 여는 초등돌봄 실천
초등돌봄교사연합회

보도자료

담당 ☎ 02-2291-6566
홍보국장 윤혜숙, 사무총장 김지섭

배포일시 2020.3.10.(화) 즉시

서울시중랑구 봉화산로 55-1, <http://ecta.or.kr>

코로나19 '심각'단계로 휴업 연장에 따른 초등긴급돌봄에 "돌봄전담사, 방역지원 활동에 최선 다해"

- 코로나19 '심각'단계로 학교의 휴업이 추가 연기되고 긴급돌봄 운영시간도 오후 7시로 연장 됨에 따라 학부모를 상대로 3차 수요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코로나19 대응, 아이돌봄 어려움 덜어드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범부처간 긴급돌봄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안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합회에서도 정부의 정례브리핑과 뉴스, 교육당국의 발표문에 촉각을 세우며 돌봄 교실 방역지원현황등 현장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 초유의 긴급돌봄이 이어지면서 3월10일 현재 하루 확진자가 100명대로 떨어져 다행이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긴급돌봄 현장에선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 본 연합회 전국지회인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전,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긴급돌봄에 보낼 수 밖에 없는 학부모의 입장을 더 생각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어려움을 다함께 잘 극복해 보자는 다짐이 이어졌다. "돌봄교실 현장 전문가는 바로 우리다!" 라는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본 연합회 자체 개발자료인 안전예방과 놀이활동 프로그램등을 활용하고 각각의 운영에서 쌓인 노하우를 공유하며 긴급돌봄 중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학생들이 사용할 교구를 하나하나 일일이 닦고 소독하고 말리는 등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학생 등교시 발열체크 실시와 입실, 학생이 돌봄교실에 머무는 동안 손 소독제 사용과 하루 두 세 번 발열체크를 실시하여 일지에 기록, 손 씻기와 돌봄참여 학생 간 일정간격 거리두기를 유지하게 하며 다양한 교구재를 활용한 개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급·간식 시간에도 촉각을 세워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현재, 긴급돌봄에 지원되는 방역물품은 교실소독제와 학생용 마스크등 점차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이지만 교사용 마스크는 여전히 지급되지 않아 아쉬운 상황이다.

□ “코로나19 확진자가 돌봄교실에서 발생할 시, 이는 3차 4차 견잡을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텐데 돌봄교실도 학교휴교와 함께 2주 정도 딱 멈춘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최대한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생이 안전한 돌봄교실을 만들어 가자고 나선데에는 “국가적 재난으로 인한 학교 휴교령이 내려지는 경우 이전에도 그랬듯이 어차피 우리는 해야하는 상황이다” 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한숨처럼 깊게 자리하고 있다.



발열 체크



긴급돌봄에 제공된 방역물품



교구재 소독 후 말리는 모습



긴급돌봄 방역물품